

## 01

## TB Alliance, 약제감수성 및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 확대

국제 에이즈 총회 행사 중에, 결핵약제개발 국제연맹은 치료 기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결핵약제 복합요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 새로운 요법의 Phase II 임상실험 결과는 <The Lancet>에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주 이내에 결핵환자가 가진 결핵균의 99퍼센트 이상을 사멸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치료법들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새로운 용법을 활용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1년 이상, 약제감수성 결핵환자의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top TB Partnership의 신 약제 워킹그룹이 이끄는 가운데 TB Alliance와 연구진들이 발견해낸 이 결과는, 몇몇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약제내성결핵 치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고 있다. 이 결과는 또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결핵/에이즈 동시감염 환자들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 호환 결핵 치료에 대해서도 진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임상 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후보 약제와 이미 다른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대해 사용 승인되었던 새로운 결핵 약제, 그리고 기존의 결핵 약제 간의 복합에 대한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결과는 사전임상실험 데이터와 함께, 이 새로운 복합요법이 약제감수성결핵과 몇몇 형태의 약제내성결핵에 대해서도 4개월 정도면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 02

## 美 배우 우피 골드버그, 아동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요청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 AIDS 2012의 특별 세션을 마치며, 수상배우이자 UNICEF 친선대사인 우피 골드버그는 아동과 여성의 결핵/에이즈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시급하다고 열정적으로 요청했다.

“우리는 여기에 합의해야 하며, 결핵과 에이즈의 퇴치를 위한 연대를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결핵/에이즈 행사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발언하게 된 우피 골드버그는 이러한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최근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보다 많은 금전적 지원 노력을 키워야 하고 보다 많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충격이었다. 나는 항상 실제보다, 우리가 더욱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골드버그는 결핵을 앓는 아동들, 그리고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들의 수에 대한 분함을 나타냈다. “왜 항상 여성들은 피해 받아야 하는가?”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모두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길 바란다.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 결핵과 에이즈를 하나의 질병인 것처럼 여기고 퇴치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 03

## Xpert 카트리지 비용을 40% 낮추다

에이즈 완화를 위한 미대통령 긴급 계획(PEPFAR)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AID,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은 145개 고위험국가 및 개발국가들에서 결핵신속진단검사법인 Xpert MTB/RIF 기술의 비용을 눈에 띄게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파트너십으로부터 마련된 자금을 통해 Xpert MTB/RIF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의 비용을 16.86달러에서 9.98달러로 낮아지며, 이 가격은 2022년까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가격인하는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Xpert MTB/RIF의 높은 단가는 중저소득국가에서의 도입과 사용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결핵 진단을 위한 카트리지의 비용이 40% 이상 즉각 낮춰지게 된다. Xpert는 분자진단시스템으로 두 시간 이내에 에이즈와 결핵의 공동감염 여부와 리팜피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종래의 연구소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특별한 훈련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WHO는 2010년 12월 Xpert MTB/RIF 기기를 승인한 바 있다.

아프리카에서 결핵은 에이즈 환자들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Xpert 검사의 이용이 수월해지면 보건종사자들이 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며, 결핵의 발병과 전염,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Xpert를 확대해 나갈 경우, 70만 건의 결핵 사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며 중저소득국가에서 지출되는 보건 분야의 직접비용 1,8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 04

## 결핵에 대한 글로벌 펀드 보조금의 비중 확대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는 과도기적 자금지원방식에 관한 기술적 평가 위원단의 자금지원관련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방식은 달성한 이익을 보호하고 11차 보조금 지원이 끝난 필수적 프로그램들의 유지를 보장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글로벌 펀드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체 승인된 재정지원(5억 1천만 달러) 가운데 25%(1억 2,740만 달러)가 결핵에 관한 부문에 지원되었는데, 글로벌펀드가 설립된 200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의 평균수준인 16%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결핵 부문의 지원서들은 86% 가량이 통과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말라리아 부문은 79%, 에이즈 부문은 62%로 나타남) 결핵만을 다룬 제안서 가운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없다.

말라리아 프로그램에는 가장 많은 자금지원(2억 420만 달러)이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72%는 모기장을 교체하는 데 쓰일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지원금은 1억 7,930만 달러 정도가 될 예정이다. †

